

통합민주당 '대통합'으로 가나

孫, 화순 탄광서 '호남 공들이기'

김효석 "당지도부 대통합 안하면 탈당"

'광주 8인' 내일 다시 회동 대통합 촉구

통합민주당 내의 대통합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물지마 대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내부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우선 지난 3일 범여권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효석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대통합에 대한 태도 수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달 중순 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통합민주당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민주당이 대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먼저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제3지대에서 대통합

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제정과 의원들과 이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통합민주당 의원 3~4명이 제3지대에서 대통합의 깃발을 든다면 범여권 의원들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과 신중식, 이낙연, 김효석, 채일영 의원, 김영진 광주시장위원, 정경환 전 의원 등은 7일 광주에서 다시 '8인 회동'에 나선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통합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탈당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들과 4명의 현역의원들이 집단 탈당 카드를 꺼내든다면 통합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구 중도통합신당 출신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범여권 대통합 움직임을 대한 내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구 민주당 의원들과 구 중도통합신당 의원 등 8명의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회동, 범여권 대통합에 대해 논의한 뒤 당 지도부에 대통합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광주시장 수석부위원장은 10여명도 5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민주 제세력의 대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차 민심대장정' 5일만에 다시 전남 찾아 채탄작업

민심대장정 1주년을 기념, 지난 1일부터 2차 민심대장정에 나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5일 화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탄광에서 광부들과 함께 채탄 작업을 했다.

손 전 지사는 1차 민심대장정과 마찬가지로 지난 1일 장성군 황룡면 비닐하우스에서 2차 민심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딘 데 이어 5일만에 두 번째 전남 지역을 찾은 등 호남민심과의 접촉 면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전날 저녁 이곳에 도착했던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5시에 일어나 식사를 한 뒤 7시에 광업소 현장으로 이동했다. 송중석 광업소장으로부터 광업소 현황을 소개받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광부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았다.

손 전 지사는 "요즘은 작업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항상 위험 속에 있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깊은 막장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나라 애국자들이라고 항상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 "여러분이 하시는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따뜻한 체온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에서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작업현장에 채탄부 9명과 함께 투입된 손 전 지



제2차 민심대장정에 나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5일 화순군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지하 작업 현장에서 채탄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에게 배당된 하루 채탄량은 8.4t. 채탄 작업은 사암기로 뚫은 경도 벽에 화약을 집어넣어 발파한 뒤 탄을 체인 컨베이어로 나르는 작업이다.

손 전 지사는 이 작업을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다른 채탄부들과 똑같이 했다. 오전 작업을 마친 뒤에는 광부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으며

오후 작업을 마감하고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손 전 지사의 이번 탄광 방문은 지난해 1차 대장정시 강원도 삼척시 경동탄광, 충북 보은의 마로탄광에 이어 세 번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상천 "물지마 대통합은 안된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저녁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만나 '물지마 대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정책과 노선이 다른 '잡탕식 대통합'은 대선 필패"라며 "통합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중도 대통합'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일궈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상천·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범여권 대통합 방안과 대선 후보 선출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천 대표는 "통합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주요 직책에 있었더라도 정책 노선이 같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정동영 후

보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해 통합민주당 경선 참여를 우회적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정동영 전 의장은 "두 사람이 대통합의 영웅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화답하면서 사실상 '대통합의 결단'을 촉구,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의 인식 차이를 확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인제 3번째 대권 도전 선언

통합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도개혁주의의 깃발을 들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의 대권 도전은 지난 97년 15대 대선에서 국민신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해 중도하차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식에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민생이 절망에 허덕이는 것은 중도(中道)를 이탈한 급진 노선이 국가를 경영한 필연의 결과"라며 '지식정보강국', '복지문화대국', '통일조국 건설'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또 집중된 권력을 의회와 지방에 나누는 본권 대통령제(의원정부제) 개헌을 비롯,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 '햇볕정책의 한 단

계 발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특히 과거 대선 과정에서 서의 경선 불복 및 탈당에 언급, "97년 당내 경선 당시 40대의 젊은 저로서는 독자 출마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기 어려웠고, 2002년에는 집권이 확실해진 급진 노선을 추종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탈당을 결행한 것"이라며 "구구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며 원숙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범여권에서 진행되는 후보 연석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통합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서지는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 직후 광주를 방문, 오후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광주시당에서 당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또 6일에 는 충북, 대전 지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들어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인제 통합민주당 의원이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광주를 방문,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두관 광주 방문 대선레이스 본격화

'이장 출신 대통령'을 꿈꾸며 4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두관 전 행정부 장관이 5일 첫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 대선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권 도전의 포부를 다시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민주세력 일부에 기득권에 안주해서 더 이상의 변화와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며 "이런 민주화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생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더 어려워진다"며 "풀뿌리 현장의 정치를 중앙정치와 접목시켜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공영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외국민 선거권' 최대 쟁점 부상 예고

17대 대선을 앞두고 새로 구성된 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3선의 이상배 의원을 선임하고 한나라당 안경률, 열린우리당 윤호중,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간사로 뽑았다.

위원 수는 한나라당 9명, 우리당 5명, 통합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20명이다.

정개특위 활동 본격화 위원장에 이상배 의원

이번 정개특위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법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들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에게 올해 대선의 선거권

을 부여하는 문제가 정개특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대선부터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일단 대선에서는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고 맞서고 있다.

범여권 정당들이 추진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부터 바로 합격기입니다
"전 과목"
2007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박이심시오
관망이심시오

직원채용 (정규직)

- 2년제이상 졸업자
- 남,녀(30세미만)
- 이력서자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84-5263

www.party-food.co.kr

www.party-food.co.kr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 · 도시락납품 · 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청년퇴임식
- 기업식 기념식

시·시내 출장전문
· 제육대접·아유회
· 식탁·인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준비

TEL 010-220-0065-7